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동행'

한국여성재단이 <한겨레21>을 구독하면서 동시에 기부도 하는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창간 15주년을 맞은 <한겨레21>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공공의 이해에 기반한 건강한 상식과 자유로운 소통이 확산되는 사회 만들기를 위해 추진하는 기부캠페인입니다.

참여방법

'아름다운 동행' 사이트를 방문하여 기부단체 중 "한국여성재단"을 선택하고 <한겨레21>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구독료의 일부(20% 한도 내)를 독자님의 이름으로 여성재단에 기부하게 됩니다.

한국여성재단 10년을 함께 해주세요

한국여성재단의 2009년은 재단 창립 1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 동안 딸들에게 희망을 주신 기부자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온 길은 보람과 기쁨의 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재단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과 함께, 여성활동의 현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 회원이 되는 방법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에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나눔참여를 클릭하시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나 메일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후원계좌 예금주:(재)한국여성재단

국민은행 079-01-0405-971 농협중앙회 369-17-005283 우리은행 500-050638-13-001

(재)한국여성재단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8-17 한국여성재단 빌딩 5층
tel. 02-336-6364 fax. 02-336-6459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딸 것들에게 희망을

2009 여름호 Vol.006



특집 돌봄공동체 '어린이도서관'

기획 2009 여성희망캠페인 31일간의 소식

글로벌리포트 호주 라이카르트 지역 여성건강센터를 가다

오한숙회가 만난 사람 수다톡 TALK

한번 언니는 영원한 언니인 것이여!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 정현숙

여성과 팔짱끼다 간절히 꿈꾸고 끝없이 도전하는 여성 리더 가천길재단 이길여회장



이 그림은 박재동 화백(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께서 작품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사라예보 탁구신화의 주역 정현숙씨.
그녀는 지금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으로
후배들을 이끄는 든든한 언니다.

(재)한국여성재단
한국여성재단은 새 천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세기를 살아갈 우리의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발족되었습니다.

계간 딸들에게 희망을 여름호
발행일 2009년 6월 30일 통권6호
발행인 조형 편집인 강경희
편집위원 김혜련 로리주희 박미라 이유진 정박미경
표지촬영 한경은
기획·편집 (재)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8-17
한국여성재단 B/D 5층
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편집디자인 (주)인투그래픽
등록일 2006년 2월 6일
등록번호 서울바03609

contents www.womenfund.or.kr

- 04 여는 글 나눔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 / 조형(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06 특집 돌봄 공동체 ‘어린이도서관’
 - 1. 고단한 돌봄에서 행복한 어울림으로 / 박영숙(느티나무도서관 관장)
 - 2. 도서관에서 꿈을 찾다 / 강기숙(느티나무도서관 자원활동가)
 - 3. 행복을 묻는 부산 맨발동무도서관 / 임숙자(부산 맨발동무도서관 관장)
- 14 기획 2009 여성희망캠페인, 31일간의 소식 사진 한 장에 담긴 나눔의 메시지
- 18 글로벌리포트 호주 라이카르트 지역 여성건강센터를 가다 / 이재은
- 22 오한숙희가 만난 사람 수다톡 TALK
한번 언니는 영원한 언니인 것이여!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 정현숙
- 28 몸이 말하는 마음이야기 호흡으로 몸과 마음 읽기 / 왕인순
- 30 천만 개의 기부 건국대 환경과학과 학생들의 ‘커피 한 모금’ / 조성인(건국대 환경과학과)
- 32 고양이 손 세상을 만난 나, 동네주부 / 이미경(은평 꿈나무어린이도서관 관장)
- 34 여유와 공감 입에 들어온 설탕 같은 키스들 / 김선우(시인)
- 38 문화향기 ‘동백이’는 나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까? / 권인숙(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 42 여성과 팔짱끼다 간절히 꿈꾸고 끝없이 도전하는 여성 리더,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
- 47 재단통신 도토리 하나, 콩 한쪽의 나눔
지역과 글로벌의 만남
결혼이주여성에게 건강검진과 의료교육 진행
이화·유한김벌리 이화NPO리더심심화과정 3기 수료식 개최
多문화함께 중간평가회 열려
국제아동도서협의회 한국위원회, 아이다마일에 도서나눔
문화나눔 서포터즈 4기 활동을 마치며
- 51 김정희의 인세나눔 <공정무역, 희망무역>
- 52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동행’

나눔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

글/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한국여성재단에게 5월은 <2009 여성희망캠페인 및 100인 기부 릴레이> 집중모금의 달이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도 <100인 기부 릴레이>는 우리 재단의 전통있는 모금사업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음 사람에게로 나눔의 바통을 이어가면서 4천여 명의 남녀노소 주자들은 “남들과 나눌 수 있는 행복”을 체험했습니다. 릴레이를 시작하자마자 한꺼번에 완주를 한 줄도 있었고, 조금 더디게 달리더라도 더 많은 여럿이 함께 나누며 즐거운 줄도 있었고, 경제가 어려우니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주자들을 격려해주신 이کم이 덕분에 기부금 액수 최고를 기록한 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기금은 201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쓰일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망’임을 믿고, 내년에도 재단은 우리 사회를 평등한 사회,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한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여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불어 살고 미래세대에게 남길 빛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실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이 절실합니다. 많은 성현들이 주장해 왔고 어릴 적 교과서에서도 배웠던 이웃 사랑이 현실생활에서는 왜 그리 실천하기가 어려운지요. 이번 호부터 돌봄 공동체를 특집으로 정하여 우리 주변의 따뜻한 돌봄과 나눔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동네들을 찾아 그 이야기를 널리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웃에 대한 이해와 포용,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마음은 물질이나 다른 어떤 나눔에도 선행하는 건강한 사회의 필수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자신의 삶이 더욱 환해지므로, 타인을 배려함으로써 당신은 최대의 이익을 얻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이라는 달라이라마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나눔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들, 보통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짚어보게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아름답게 살고 또 떠나갈 것인가를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추기경님의 선종이 장기 나눔으로 이어진 것처럼,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들 각자에게 사람답게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학적으로 고민하는 삶을 선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W

어느 틈엔가 도서관은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말을 걸어온다.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곳'을 넘어 문화가 탄생하고, 소통하는 공동체의 장으로 우리와 이웃하고 있다. '지식'이 사람을 만나 실천의 원동력이 되고, 평등한 만남을 열어주고 대안적 삶을 꿈꾸게 하는 곳. 도서관, 그 안에서 꿈을 나누고 미래를 만드는 아름다운 우리 이웃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고단한 돌봄에서 행복한 어울림으로

글/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 관장



밥 한 그릇을 달게 먹고 났는데도 그릇이 다시 그득하게 채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법의 친구들이 등장하는 옛이야기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그런데 밥이 아니라 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 권을 맛있게 읽고 나면 누가 또 이 책을 펼쳐 가슴을 두근거릴지, 어서 그 책을 건네고 싶은 수많은 얼굴이 떠오른다.

그래서 도서관이 좋다. 읽어도 비워지지 않는 책들이 가득 꽂혀 있으니. 게다가 책은 나눌수록 배가 부르고 맛도 더해진다. 책 한 권을 놓고 둘러앉으면 따끈한 밥술에 맛깔스런 반찬 한 가지씩 얹히는 것처럼 풍성한 이야기밥상이 차려진다. 누구든 더 걸터앉아도 좋을 만큼 넉넉하게.

그래서일까?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놓고 공동체라는 말을 떠올린다. 더 이상 도서관이라는 이름에서 '하면 된다' 같은 표어 하나씩 써 붙인 칸막이들 사이로 꾀죄죄한 추리닝이나 교복 차림의 수험생들이 무료하기 짝이 없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풍경을 떠올리지 않는다는 건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다. 그러면서도 공동체라는 수식어를 다는 데에는 언제나 조금 불편함을 느낀다. 도서관은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공공성'을 담아야 하는 곳인데, 공동체라고 하면 언제나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라도 울타리가 쳐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지난 몇 해 동안 곳곳에서 만들어진 도서관들의 사례에서 실제로 '끼리 공동체'가 되어버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이유를 만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책과 사람을 만나고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배움, 놀



이, 일상을 나눈다는 것은 틀림없이 '공동체성' 또는 '공동체문화'를 몸에 익히고 실천하는 과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은 다양한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활동을 이어가는 토대로도 뜻을 가졌다. 그래서 또 다른 가능성을 꿈꿔 본다. 어쩌면 도서관의 일상이 빚어내는 느슨함의 기운이, 지금 곳곳에서 시도되는 공동체들에 좀 더 자유롭고 역동적인 소통과 참여가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

배움 나누기 : 스스로 배우고 함께 배우기

도서관은 무엇보다 배움을 나누는 곳이다. 성찰이 있는 삶에 대해 끊임없이 말을 거는 책들 속에서, 지적 모험과 깨달음은 더 자유로운 상상을 꿈꾸며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움을 북돋우고 격려하는 멘토가 된다. 주어지는 학습목표도 시험도 없지만, 경쟁과 평가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비로소 삶과 분리되지 않은 배움을 누릴 수 있고, 남을 밀쳐내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배움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한다.

평생학습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주도적 학습과 배움 공동체, 두 가지 모두를 실천할 수 있는 인프라가 바로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은 삶터에 자리 잡은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도 큰 뜻을 가진다. 다양한 지식 포털과 온라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촛불집회 같은 실천적 경험도 더해지면서 말 그대로 웹 2.0시대 집단지성의 위력을 실감하게 된다. 그런데 삶터에서 얼굴을 맞대는 만남은 커뮤니티 활동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정서적인 연대와 공감, 일상과 삶터를 공유하는 데에서 우러나는 안정감과 실천력은 말할 나위도 없다.

수다 나누기 : 자아 찾기, 그리고 관계맺기

느티나무에 찾아오는 단골 회원들에게 도서관에 들어서면 '무장해제'가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그래서인지 좀처럼 조용할 새가

없다. 대체 도서관으로 들어서는 길목에 무엇이 있기에 그런 걸까.

도서관 이름 앞의 공공이라는 말에 담긴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는 뜻을 뒤집어 보면, 내가 누가 되어도 좋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부모, 아들, 딸, 교사, 학생처럼, '되어야 하는' 뒤편에서 놓여날 때 비로소 내 자신이 되는 것 같다. 경쟁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때 열리는 가능성!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거는 책들에 둘러싸여 책 속에 담긴 수많은 삶의 이야기에 빠져 들고, 또 다른 삶에 대한 가능성을 꿈꾸기도 한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 같았다. 도서관을 공동체라고 한다면 '수다 공동체'라





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맘껏 수다를 나눌 공간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들려줄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수다를 아줌마의 상징처럼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아이의 성적이 나 집 평수를 빼면 정작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을 기회는 찾기 힘들다. 성적에 관련된 이야기를 빼면 부모와 자녀가 나눌 대화도 얼마나 남을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도서관의 책꽂이에 담긴 이야기들은 누구든 다시 말을 건네게 해줄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십대와 부모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낭독회, 아이들이 이야기손님이 되어 발제를 하는 토론회 같은 행사들은 닫힌 소통의 실마리를 조금씩 찾아가는 기회가 되었다.

실천 나누기: 고단한 돌봄에서 행복한 어울림으로

자기 자신을 찾고 긍정하게 된다는 건, 참으로 신기하게도 더 넉넉하고 자발적인 관심과 돌봄으로 이어졌다. 혼자 지고야 할 짐일때는, 불안하고 고단하던 돌봄이 차츰 이웃으로 넓혀지면서 새로운 의미가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일 듯 말 듯 도서관 구석구석에 손을 보태는 자원활동가가 되었다.

실제로 도서관은 자원활동이 활성화되기에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책과 사람 모두 자원활동의 동기를 유발하기에 매력적인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서비스는 공을 들일수록 얼마든지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거리’가 된다.

그렇다고 자원활동이 모자라는 일손을 보태는 것만은 아니다. 자원활동가들은 도서관의 책꽂이에 새롭게 꽂히는 책들을 누구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누린다. 새로 들어온 책을 정리하고, 이용자들이 골라오는 책을 빌려주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지은이 만남’ 같은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책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 욕구를 채워주는 기회가 된다. 아이를 낳고 살림살이에만 매달려 사회적인 관계에서 고립되어 스스로 발전을 멈췄다고 여기던 주부들에게 지적 자극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매력적인 동기유발의 계기가 된다. 뿐만 아니라 내 아이에게만 매달리던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에 참여한다는 자긍심과 보람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돌봄의 동력이 된다. 많은 자원활동가들이 갈수록 바빠지지만 더 행복해지는 것 같다는 흐뭇한 고백을 들려준다.

꿈 나누기: 시민사회의 열린 마당

도서관은 삶터에서 환경, 인권, 육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소통하며 활동의 폭을 넓히는 장이 될 수도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서관은 여러 단체의 활동을 알리고 참가자들을 모으는 통로이기도 하다. 갖가지 행사 홍보물이나 조례제정운동이나 정책 제안, 캠페인 등에 관련된 자료들을 도서관 책꽂이에서, 벽에 걸린 게시판에서 만날 수 있다. 도서관에 지역 단체들이 찾아와 강연회, 워크숍, 회원의 날 행사나 총회를 열기도 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주제로 한 강좌는 꾸준히 공부하는 모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느티나무에서도 여러 해 동안 독서회와 자원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웃 단체의 활동가가 되거나 따로 모임을 꾸려 공동육아조합이나 대안학교를 시도하기도 했다.

환경단체, 장애인단체, 청소년단체, 사진이나 음악 동호회 등에서 관련분야의 신간 자료 목록을 받아 도서관에서 구입할 책을 고를 때 참고하

고, 새로 나온 책의 작가를 소개받아 지은이 만남 행사를 기획하기도 한다. 단체들이 만들어내는 갖가지 자료집을 모아서 도서관의 자료로 꽂아두는 건 말할 나위도 없다.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나 캠페인에 도서관이 참여하기도 한다. 지구의 날 행사 같은 축제마당에 환경책 전시 부스를 만들고, 이주민단체에서 여는 행사에 여러 나라 말로 된 책을 들고 나가 일일도서관을 열고 베트남, 몽골, 네팔 등 이주민들이 책 읽어주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한다. 그런 행사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들은 다시 도서관의 책꽂이에 차곡차곡 자료로 쌓일 뿐 아니라, 행사에서 관심을 갖고 동기부여를 하게 된 사람들이 새롭게 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이어가기도 한다.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풍성한 수다와 배움과 일상을 나누며 각자 꿈을 찾고 실천할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역시 사람의 몫이다. 변화의 흐름을 읽으면서 그 흐름에 맞는 동기유발과 참여의 장을 기획하고 그 시간들을 스스로의 삶으로 살아낼 코디네이터들, 도서관을 공동체보다 더 넉넉

한 나눔과 어울림의 공간으로 만들어낼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봄을 지내며 구석구석 야생화들이 피어나고 도서관 마당에서 있으면 언젠가 이 마을에서 자란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흐뭇한 상상에 빠져들곤 한다. 때로는 비밀스레 가슴을 뛰게 만들고, 밤새 눈물을 흘리고 까르르 웃게 만들던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있고, 그 사이로 들이비치는 햇살이 담쟁이를 키우고 아이를 키운 시간을 오롯이 기억하는 이웃들에게 둘러싸여 삶의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고 살아내는 풍경. 도서관의 이름을 지으면서 마을의 상징인 느티나무를 떠올렸던 건 바로 이런 행복한 상상을 예감했던 게 아닐까. W



도서관에서 꿈을 찾다

글/강기숙 느티나무도서관 자원활동가

도서관 문을 열면 첫눈에 보이는 곳, 대출반납이 이루어지는 책상에 나는 지금 앉아 있다. 아직 문을 열기 전. 열 시가 되면 아이들 손을 잡은 엄마들, 신문을 보러 온 할아버지, 유치원에서 단체로 견학 온 꼬마들로 활기가 넘칠 것이다. 도서관 자원활동가로 일해 온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이 글을 쓴다.



‘현모양처’. 학교 다닐 때 장래희망을 물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였다. 현모양처가 꿈이라니! 현명한 엄마, 좋은 아내가 꿈이라는 애한테 이것은 너무나도 관계지향적인 표현이다. ‘현모양처’라는 말 어디에도 ‘나’는 없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하나의 완전한 인격으로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타인의 생을 위한 희생을 강요받는다면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외롭고 공허하기만 할 뿐이다. 사람들은 모두 서로 다르고 꿈도 다 다르다. 본래는 그랬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으면서 가족관계에서 ‘나’는 매몰되고 나의 꿈도 사라졌다. 원했던 원치 않았든 현모양처로서의 삶은 많은 주부들의 사명이 되었고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거의 모든 가정의 동일한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누구를 만나든지 대화의 중심축에는, 아니 주변축에도 아이들이 있었다. 아이들만 있고 ‘나’는 없었다. 아이들 학교 얘기, 학원 얘기, 과외 얘기 등 온통 아이들 관련 얘기뿐이다. 아이와 분리되지 못하고 ‘입시’라는 동일한 인생목표를 위해 삶의 모든 기력을 소진하기 전에, 가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를 찾고 성장시킬 수 있는 곳을 나는 찾고 싶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눔이 대물림되다

지금은 수지에도 웬만한 문화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특히 마을 곳곳에 작

은 도서관도 많이 생겨났지만, 신도시로 개발되던 십 년쯤 전의 수지는 변변한 도서관 하나 없는 문화적 불모지였다.

큰 아이가 다섯 살 되던 2001년, 마침 수지에 어린이도서관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회원으로 가입한 나는 곧 독서회도 꾸리고 방과후 공부방의 교사로도 일하게 되었다. 도서관에는 책만 있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책 빌리는 곳 이상의 도서관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신도시에도 부모나 사회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아이들이 있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은 공부도 하고 밥도 먹으며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관심과 애정 속에서 ‘도서관의 아이들’이라고 불리며 자라게 되었다. 작은 어린이도서관이었던 느티나무 도서관은 지금은 훨씬 규모가 커진 공공도서관이 되었고 난 여전히 공부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청소년 동아리 후원도 하고 있다. 초등학생이었던 공부방 친구들이 어느덧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어 다시금 나와 같은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모습은 내가 도서관 자원활동가

로 일하는 이유이자 보상이며 기쁨이 되고 있다. 가난과 불균형이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경험한 아이들이 다시 나눔을 실현하는, 나눔이 대물림이 되는 것이다.

책 읽어주는 아줌마가 되다

도서관 일이라면 전문성을 요하는 일부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들까지 다양하다. 이를테면 도서대출반납이라든지 도서보수 이야기, 극장 등의 일은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며 경력이 쌓이면서 전문성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이 꾸러지려면 청소나 책싸기, 책 옮기기, 가구 재배치 등등 집안 잡일과 다름없는 일들도 많다. 품 안 나는 이런 일들조차 기꺼이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이었다. 집안일이란 무한히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이며 그 효용대상이 자기 가족으로 한정되는 반면 도서관에서의 일은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더해지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도서관 일이 집안일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다만 같은 내용의 일이라도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난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책을 잘 읽어주는 엄마는 아니다. 오히려 상당히 무관심한 편에 속한다. 아이들 책읽기가 내게는 재미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는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내 아이에게는 안 읽어주면서 다른 아이들에게는 읽어주는 이유는 다른 누군가도 또 우리 아이에게 읽어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고 또 사실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이, 네 아이 따지지 않는 넉넉함을 나눔의 공동체에서 자주 누리고 있다.



평등과 나눔의 정신을 배우는 공공 인프라, 도서관

책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 나는 도서관에서 아이들 이야기, 가족 이야기가 아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자원활동을 시작한 구체적인 동기는 사람들마다 달랐지만 가족의 틀을 넘어 자아를 통찰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구는 모두 같아 보였다. ‘가난’이란 물질의 결핍상태가 아니라 결핍에 대한 공포라는 말이 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이 시대에 정신적인 가난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하다. 소박한 꿈이지만 서로 나누며 가족을 넘어 더 넓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곳, 도서관은 지식을 획득하고 그 획득된 지식으로 서로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이 지식과 정보를 얻으며 평등과 나눔의 정신을 배우는 공공의 인프라이다. 이제 도서관이 공공의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는 데 작은 몫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나의 꿈이 되었다. 내가 가진 안정된 가정, 경제력, 지식, 시간, 열정을 이 꿈을 위해 쓰고 싶고, 누구나 와서 책 읽는 즐거움을 누리며, 정보를 얻으며, 이웃과 교류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기쁨을 얻고, 자신의 꿈을 찾게 도와주는 곳, 그런 도서관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처럼 도서관에서 자기의 꿈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W

가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맨발동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다. 다들 고개 끄떡이며 듣고 난 뒤에는 꼭 묻는 게 있다. 반드시 물어 보신다.

“그동안 힘든 점도 많았지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실 이 때가 가장 난감하다. 있었던 것도 같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으면 조용히 일어나서 앞치마 벗고 나가요” 이렇게 말하면 ‘설마’ 하는 얼굴로 웃는다. 사실이다. 나도 가끔은 앞치마 벗고 대 천천을 걸으러 나간다.

지금 행복하니?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어른들한테 자주 묻는다.

“지금 행복하니?”

“요즘 행복해요?”

웬지 도서관에만 오면 우리들의 행복을 묻고 싶어진다. 그래서 시시때 때로 묻는다.

어린이, 책, 어른.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살펴보기’ 를 오래 하다 보니 선명한 것이 보였다. 마을과 도서관이 보인 것이다. 그런데 마을도 혼자 이룰 수 없는 일이었고 도서관은 더더욱 그랬다. 전국의 몇몇 도서관을 둘러 보면서 느낀 것은 사람의 문제였다. 그러다가 마을의 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화명동 지역에서 살게 되었고, 그 안에 도서관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만났다. 2005년 7월의 일이다.

마침 쓸모를 찾지 못하고 있던 공간이 있었고 도서관을 향해 모인 사람들

의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기다릴 까닭이 없었다. 각자가 가졌던 도서관에 대한 꿈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서 열혈정도 준비를 하고 드디어 7월 17일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손에 손잡고 나누어 먹었던 가래떡은 정말로 꿀맛이었다.

그저 아이들이 한여름 피약벌을 피해 맨발로 찾아와서 즐거이 쉬었다 가는 커다란 나무 그늘 같은 놀이터, 어른들한테는 바쁜 일상 속에서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는 정이 흐르는 사랑방,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떠나면 동화의 세계로 데려다 줄 수 있는 맨발동무가 되기를 바랐다. 처음에 우리는 정말 이랬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를 생각하면 그저 신기할 뿐이다. 막연하게 도서관을 꿈꾸어 왔을 뿐, 도서관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공을 들이고 소중하게 여긴 것은 ‘사람’ 이었다.

처음 해 보는 도서관 일을 겁내지 않고 선뜻 나서서 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다. 늘 정해진 시간에 밝은 얼굴로 나타나, 행복하게 나누고 가는 자원

활동가들이다. 직접 이용자를 만나는 대출 반납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책 싸기나 고치는 일, 책문화공연과 바깥도서관을 지원하는 일, 또 다른 도서관의 일상 업무를 지원하는 등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역할을 해 주고 계신다. 집안일을 하는 아내와 엄마, 아빠의 자리에만 앉아 있던 사람들이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곳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모습에 스스로 놀라고 그 모습을 자주 만나는 곳이 바로 맨발동무가 되었다. 도서관의 활동이 이웃과 마을로, 나아가 더 넓은 세상으로 가는 길을 이어주는 다리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가웠던 것은 현관문을 밀며 “얼마예요?” 묻기도 하며 이용자들이 오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계단의 발소리에 귀를 쫓긋하는 버릇이 있다. 무슨 소리라도 들릴라 치면 현관문을 열어 놓고 1층, 2층으로 오르는 발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계단 아래로 숙 내밀고 “어서 오세요” 하고 반긴다. 계단에 놓인 신발수를 세어 보는 일은 커다란 즐거움이었다.

이웃과 마을, 세상으로 나가는 다리

우리의 즐거움이 이것 뿐이겠는가. 달마다 한번 <찰방찰방>을 하는 날이면 선풍기와 에어컨을 다 틀어도 그 열기를 식히기가 어려운 때가 많았다. 노래하고 옛이야기 듣고 빗그림을 보고 난 뒤 불을 켜 보면 아이들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땀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이제 여기저기서 놀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도서관 계단을 오르고, 대천천에서 놀다 지쳐 잠시 쉬러 오기도 하고, 학원가기 전에 들렀다 가기도 한다. 또 “오늘 간식은 언제 먹어?” 하며 먹을 것을 찾아오는 곳이 되었다.

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고 걱정을 해 주시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빙그레 웃고만 있는 우리가 답답했는지 어린이들과 함께 멋진 다단계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해 주었다. “맨발동무가 우리 마을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라며 우리를 감동하게 만드는, 즐기는 이용자가 많아진 것이다.

또 도서관을 후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 십시일반으로 도서관을 내 집 살림인 듯 걱정하고 지원해 주시는 마을사람들과, 후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느티나무도서관재단이나 미래포럼 내 만분클럽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을 만나고, 소외되는 사람없이 누구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희망을 나누는 마을을 이루고 싶다.



공공도서관은 그대로 역할이 있고, 또 마을에 있는 도서관은 이대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무리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어도 올 수 없는 아이들이 있고 어른들이 있는 법이다. 마을 안에서 소중한 곳의 역할을 해 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도서관 안에서 이용자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 나서기도 한다. <찾아가는 찰방찰방>이나 <찾아가는 맨발극장>, 시시때때로 <바깥도서관>을 열어서 그들이 사는 길목에서 만나 책과 사람이 있는 공간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책꽂이에서만 살던 도서관의 책들도 목욕통 속에서 어린이를 만나고 마을을 만나는 일을 더 즐겁고 행복해 하는 걸 느낀다. 우리는 바람과 햇볕과 열린 공간에서는 아이들도 어른들도 쉽게 맨발동무가 될 수 있다는 걸 바깥도서관에서 알게 되었다.

세상에는 많은 도서관이 있다. 그 가운데 맨발동무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고민이 많다. 돌이켜보면 4년의 경험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찰하게 하는 힘을 준 것 같다. 무엇보다도 우리한테는 서로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마을이 있다. 이 안에서 더불어 배우고 성장하는 길을 행복하게 걸을 수 있다고 믿는다.

다시 묻고 싶다.

“맨발동무야, 너는 행복하니?”

어떤 대답이 들리세요? W

행복을 묻는 부산 맨발동무도서관

글/임숙자 부산 맨발동무도서관 관장



2009 여성희망캠페인, 31일간의 소식

사진 한 장에 담긴 나눔의 메시지

1. 2009 여성희망캠페인 발대식 개최



1. 2009년 4월30일, 100인 기부 릴레이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발대식이 열렸다. 128명의 이کم이들은 5월1일, 하루 한명씩 주자를 세우는 31일간의 기부 릴레이를 시작했다.



이کم이들의 행복한 다짐

2. “제 줄에 참여한 주자들을 내년에는 모두 이کم이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 2008 이کم이 대표 박현경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3. 6년 동안의 노하우로 7년 연속 이کم이에 도전하다: 7년 연속 이کم이 신석교 제일은행 제일지점장

기부는 숨이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작은 움직임이지만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 by 정현진

2. 5월, 나눔을 약속한 사람, 사람들

1. 여성정론지 여성신문(김효선 사장)의 언론공동캠페인, (주)생그린(오미경 차장)의 ‘매화향 가득한 곳’ 판매수익금 나눔
2. 행복나눔치과(조영숙 원장)의 일터나눔:개원과 동시에 딸들을 위한 희망나눔에 동참했다.
3. SK커뮤니케이션즈(안진혁 실장)의 이주여성센터 후원금 전달, 태평양복지재단(임재연 사무총장)의 ‘태평양 사랑의 교복비 지원금’ 전달
4. 아침을 여는 책지기 ‘페이퍼홀릭(김기만 대표)의 도서나눔: 총 104권의 도서가 <미래포럼 만분클럽>이 지원하는 어린이도서관에 기증됐다.



감동과 즐거움을 나눠준 문화공연! 총 250명 문화공연 관람

5. 숙명기야금연주단 <WE-ON>, 문화기획 연 <길 떠나는 가족>, 한강아트컴퍼니 <미 아모르>, <항기>, 유니베라 <유니베라수요음악회>, 원더스페이스 <빨래>



7.우리동네 여성희망가게, 동전모금함에 참여한 마포지역의 가게들 (총59곳)

마포FM공동체라디오 <랄랄라 아줌마>코너에 오한숙희, 한숙자 모녀 출연

6. 최근 팔순을 맞아 흥대 부근 <버레별씨>카페에서 그림전을 열었던 오한숙희의 어머니 한숙자님, 엄마와 딸의 특별한 인생이야기, 여성과 나눔 등에 대한 모녀의 아름다운 수다.

기부는 작품의 완성이다! 기부는 받는 이의 착박한 하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려주고 색감을 더해 주는 것. 세상이라는 미흡한 작품을 함께 완성해 나가는 것. by mcjstop

고슬고슬한 희망을 짓는 ‘일곱색깔 밥상’ 8



새이웃 다문화가족

8. 경향신문과 함께 한 언론공동캠페인
총 4회 기획기사 연재

꽃보다 여성운동

여성신문과 함께 한 언론공동캠페인

9. 5월 한 달, 여성신문사는 한국여성재단의 100인 기부 릴레이 소개와 여성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총 5회 기획기사 연재



여성재단 홍보대사들의 100인 기부 릴레이

5. 진양혜 · 손범수 아나운서

6, 7. 팬클럽<새침뜨끼>와 함께 100인 기부 릴레이에
참여한 가수 이승철

8. 보컬리스트 이소정



캠퍼스로 간 100인 기부 릴레이

9. 커피 한 잔으로 기부해요!

건국대학교 김재현 교수와 환경과학과 학생들

10. 모든 위대함의 시작은 여성입니다!

호남대학교 김경아 교수와 학생들

11. 주자로 참여한 현대 무용단<탐>



3. 100인 기부 릴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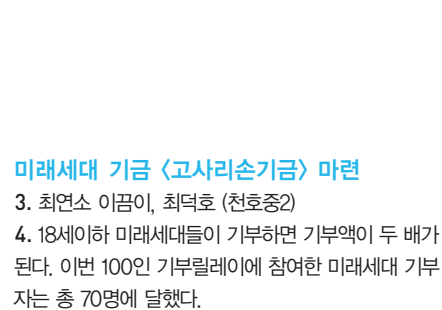
4. 100인 기부 릴레이 감사의 자리



역대 최대 128명 이금이 탄생, 4,158명 주자참여(6.15 현재)

1. 2009년 1호 완주 이금이: 패밀리와 함께 한 이규춘 이금이(우전건설 대표)

2. 최대 주자줄을 이끈 캐쉬 SOS: 여성가장 긴급지원 캐쉬 SOS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294명의 여성가장들과
자녀들, 캐쉬 SOS사업 단체가 나섰다.



미래세대 기금 <고사리손기금> 마련

3. 최연소 이금이, 최덕호 (천호중2)

4. 18세이하 미래세대들이 기부하면 기부액이 두 배가
된다. 이번 100인 기부 릴레이에 참여한 미래세대 기부
자는 총 70명에 달했다.



1. 6월 22일, 기부 릴레이에 참여한
기부자들을 초청, 특별한 이금이 시상식과
<할머니와 랜제리> 영화 상영회를 가졌다.
2. 작은 동전 모금함을 선물로 받은 기부자들

기부는 배움이다! 자신 외의 다른 대상에 눈을 돌리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배우고 진보하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by LIU

“기부는 Dream Comes True이다!” 기부는 딸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좋은 일 by TOP

여성들에게 최적의 건강을 지원하는

호주 라이카르트 지역 여성건강센터를 가다

글/이재은

한국여성재단 전 사무처장, 뉴사우스웨일즈 대학 건강서비스 경영 석사
현재 요가강사로 여성들의 심신치유를 돕고 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가여성건강정책(National Women's Health Policy)을 시행해 왔으며, 그 모델이 다른 나라의 여성건강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이처럼 성공적인 여성건강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건강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와 관심에 부응하는 건강시스템을 획득하기 위한 비정부조직(Non Government Organization)인 여성건강센터들의 헌신과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이다. 여성건강센터들은 지역사회에서 여성을 위한 여성중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을 뿐 아니라 여성건강을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시켜 정부에 여성건강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등 여성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건강정책을 발전시켜왔다. 1989년 공포된 국가여성건강정책(NWHP)은 7가지 우선적인 여성건강이슈¹⁾와 5개 여성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영역²⁾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이후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

여성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호주에서 공부하던 필자는 시드니 라이카르트 지역 여성건강센터(Leichhardt Women's Community Health Centre)를 방문하여 연구한 적이 있었다. 잠깐 소개하자면, 라이카르트 지역 여성건강센터는 뉴사우스웨일즈(NSW)주에 있는 23개의 여성건강센터들 중 하나로 1974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3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호주 최초의 여성건강센터이다.

라이카르트 지역 여성건강센터는 한국 여성회관이나 주민센터, 사회복지관들이 커다란 건물과 세련된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그마한 정원이 딸린 소박한 이층 주택을 사용하고 있었다. 센터는 1차 진료기관인 클리닉(우리로 말하면 동네 병원이다), 침, 동종요법, 마사지 요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체보완요법클리닉(Complementary Therapies Clinics Naturapathy), 상담, 건강교육, 각

종 자조그룹 운영, 여성건강정보제공, 여성건강에 대한 조사 연구, 이슈화 및 정책화 등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다. 정규 풀타임 인력은 간호사 1명뿐이고 비영어권을 포함한 의사, 교육 담당자, 행정담당자 등은 정규 파트타임 인력(주 2-4일 근무)이며 마사지 전문가, 상담가, 침술사, 등의 시간제 인력을 포함하여 20여명의 전문 인력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 여성의 존엄성과 잠재력을 존중하는 페미니즘 철학

센터의 활동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창립 이래 변함없이 견지되고 있다는 센터의 철학이다. 평소 조직에서 철학과 정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만나 본 여성들이 한결같이 센터의 철학을 강조하는 것을 들을 때는 가슴이 벅차오르기까지 하였다. 센터는 여성의 존엄성과 잠재력을 존중하는 여성중심적인 페미니즘 철학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여성들의 내적인 힘을 존중하고 북돋우며 건강에 대해 여성들 스스로가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결

정할 수 있는 권리에 가치를 두고 여성들을 비판단적인 태도(non judgmental attitude)로 대한다는 것이다. '비판단적이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필자의 질문에 센터 실무진은 "예를 들어 센터를 찾아온 여성이 100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그 여성을 존중한다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여성을 치유하는 센터로서 이러한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여성건강센터의 의사들은 흰 가운을 입지 않는다. 이는 의료진은 전문가이고 환자는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존재라는 권위적인 의사-환자 관계가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전문가라는 것을 존중하는 센터의 서비스 철학의 한 표현이다. 여성건강센터들에서 의사가 가운을 입지 않기 시작하면서 일반 병원들에서도 흰 가운을 입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권위적인 의료 환경을 바꾸는데 여성건강센터들이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7가지 우선적인 여성건강이슈 : 생식 건강과 성, 노년 여성건강, 여성의 정서 및 정신 건강,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의 직업 건강과 안전, 돌봄 노동을 하는 여성의 건강, 성 역할 분업에 의한 건강문제
2) 여성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영역 : 여성을 위한 건강 서비스, 거강관련 종사자 교육, 여성건강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 여성을 위한 건강정보제공, 건강관련 의사 결정에의 여성참여

... 여성건강에 대한 통합적인(holistic) 접근

센터의 또 다른 철학은 건강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다. 통합적인 접근은 병을 환자의 증상이나 몸의 어느 한 부분의 이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이 처한 삶의 역사와 환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성건강의 사회적 모델에 따라 건강을 통합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자궁암 검사나 유방암 검진을 하러 오면 그 여성은 종종 폭력이나, 약물, 알코올 문제, 가족 경험이나 남자 경험 등 그들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를 물어보고 모든 것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환경과 역사가 그 병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건강은 삶의 모든 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의 사회적이고 감정적인 면에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자궁암 검사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온 여성들은 아마도 우울하여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더 많은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센터는 초진 1시간, 재진 30분이라는 긴 진료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 환자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의 선택

센터는 고객들의 선택권을 존중한다. 센터는 1차 진료기관으로써 현대 의학과 보완대체 의학(Complementary Therapies)을 통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갱년기 증세를 완화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침, 자연 의학, 약물과 알코올 상담, 자조그룹, 교육 -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우리 센터에는 갱년기 여성을 위한 많은 자연 요법(Natural Therapy)들이 있습니다. 자연 요법들은 안면 홍조나 성기 감염 같은 갱년기 증세에 좋은 효과가 있는데 의료보험에서 제외되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무료로 자연요법을 제공합니다.”

센터는 의료서비스 이외에도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 가

치를 두고 여성들을 위한 건강 교육이나 정보제공, 지지그룹 운영, 상담 등 여성의 내적 강화(empowerment)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물론 이러한 내적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선택할 수 있다. 알코올과 약물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양성애자 남편을 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비영어권 여성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등은 센터가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분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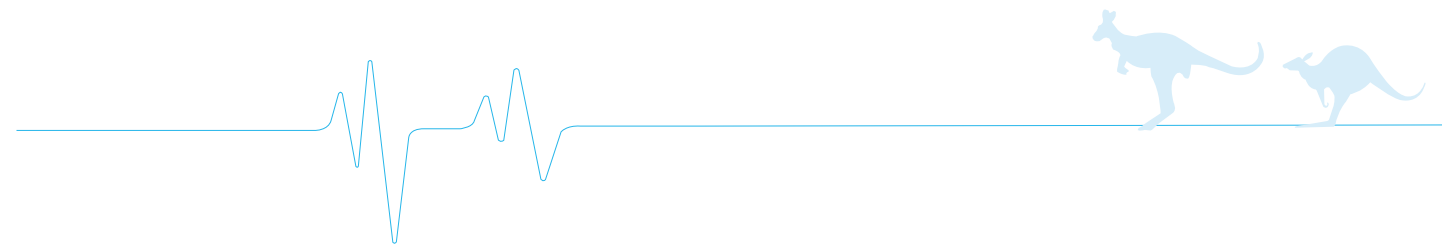
... 소외계층 여성에게 우선권을 주는 서비스

가난한 여성, 노년여성, 레즈비언 여성, 장애여성, 비영어권 여성, 싱글맘(single mother) 등 소외 계층 여성들은 센터에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여성들이 센터의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연요법, 상담, 침 시술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센터 수입의 약 80%는 뉴사우스웨일주(NSW)주정부나 호주 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무료 서비스가 가능하다.

호주 사람들은 건강이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센터 운영비의 대부분을 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비정부조직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질문에 센터의 사무총장은 건강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수평적 경영

센터의 경영은 여성을 위해, 여성이 경영하고 운영한다는 페미니즘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70년대 서구 페미니즘 운동에서 활발히 모색되었던 집단주의(Collectives) 전통은 지금까지 센터의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온 결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적극적인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 책임의 분담 등 수평적인 조직구조와 운영이 정착해있음을 볼 수 있다. 다른 조직들이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구조와 문화를 갖는데 비해 센터의 수평적인 문화는



“우리는 단지 검사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삶의 모든 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를 묻고 함께 이야기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장과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줄 뿐 아니라 고객들이 센터를 신뢰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그러나 센터가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의 높아지는 요구에 비해 예산이 늘 부족하여 적은 수의 여성들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설립 이래 지금까지 센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라이카르트 지역 여성건강센터는 이 고민을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다른 전문기관과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한정된 자원을 공유하여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 호주 국가여성건강정책, 여성 건강권 확보를 넘어 건강정책 결정과정 참여까지 (National Women's Health Policy)

여성건강센터들과 호주 정부의 노력으로 호주 여성의 건강 지위는 높아지고 있지만 원주민 여성, 농촌지역 및 오지에 사는 여성, 비영어권이나 이민 여성, 사회 경제적 소외계층 여

성들의 건강 불평등 문제는 아직도 심각하다. 호주 정부는 2007년 국가여성건강정책발전을 위한 선거공약 발표에서 여성들 사이의 건강 불평등문제에서 더 나아가 여성건강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젠더의 평등, 건강 정책 결정과 경영에서의 여성 참여의 증진 등을 주요한 목표로 제시하였다.

여성건강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수립, 예산 배정, 전담부서 등이 매우 미흡하고, 여성을 위한 건강서비스는 병원과 약국 등 영리시장에 맡겨져 있으며 여성건강을 위한 전문 여성단체 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물론 호주는 우리와는 다른 정치사회적 배경과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어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으나 여성들에게 필요한 건강 서비스가 어떠한지 아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W

라이카르트 지역 여성건강센터
http://www.lwchc.org.au/site/index.php?page=home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 정현숙

한번 언니는 영원한 언니인 것이여!

글/오한숙희 사진/한경은

한때 일기예보는 몰라도 사라예보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니까 때는 바야흐로 1973년, 내가 중2 단발머리 소녀였던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각설하고 사라예보는 유고슬라비아 도시이름인데 그곳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여자 단체전 우승을 따냈다.

“사라예보의 신화, 장하다! 대한의 딸, 정현숙 -이에리사 세계 제패”

주인공 정현숙, 이에리사와 더불어 사라예보라는 이름은 온 나라를 뒤덮었다. 그리하여 지리성적이 지리멸렬했던 나까지 사라예보라는 지명을 정확히 기억하기에 이른 것이다.

“너희에게 장미란 언니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정현숙 언니가 있었다.”

그와 인터뷰를 앞두고 ‘정현숙이 누구냐’는 딸아이의 질

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정현숙이라는 이름 석 자의 위력은 팔순의 우리 어머니가 ‘나도 정현숙 좀 보게 따라가면 안 되냐?’ 하시는 순간 딸아이를 압도하고 말았다.

남산 약수터에서 만난 산신령

정현숙의 탁구 인생은 볼걸(공줍기)로 씨앗이 뿌려졌다. 초등학교 때, 학교현관에 탁구대가 있었는데 교사들이 탁구를 치곤 했다. 그럴 때면 그는 뒤에 대기하고 있다가 공을 주워오곤 했다(요즘 같으면 교권남용으로 학부모가 항의할 지도 모를 일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탁구는 재미있었다.

동덕여중에 입학시험을 보는 데 체능시험 시간에 무섭게 생긴 선생님이 다가오더니 어디 사냐고 물었다. 탁구를 해보겠냐고 해서 무조건 한다고 했다. 합격하고 보니 그 선생님이 탁구부 코치였다.



노는 재미에 탁구부에 나갔다.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다. 시합이 두렵기보다는 재미있었다. 연습을 게을리 해도 실전에 나가면 누구보다 강했다. 하루는 코치선생님이 그를 따로 불렀다. 즐거운 탁구부 학생에 만족하며 한가로이 지내는 그에게 선수의 길을 재근하기 위함이었다.

“저한테 실망했다고 하시는 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으로 나를 설득하고 충고하던 선생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짝해요.”

그날부터 정현숙은 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남산까지 뛰기 시작했다. 동대문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장충공원까지 데려다 주시면 남산약수터까지는 혼자 갔다. 약수를 먹고 몸 풀기 운동을 한 지 열흘쯤 되었을까.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왔다.

“너는 어린애가 왜 새벽마다 와서 운동을 하나(우리야 새벽잠 없는 늙은이라 온다만은)?”

“네 저는 탁구 선수인데 여기서 운동을 마치면 바로 학교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탁구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오 그래? 그러면 네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정현숙이

라는 이름이 신문에 나는지 한번 기다려보마.”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러 정현숙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다. 그 할아버지가 알고 계실까? 사라예보의 신화 때도 그게 궁금했지만 지금껏 알 길이 없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전율을 느꼈다.

“아이고, 남산 산신령이 약수터에 잠시 강림하신 거네요. 미션을 주고 홀연히 사라지신 게야.”

무당이 공수 내리듯 반말 비슷하게 하는 내 말에 그는 몸을 옆으로 쓰러뜨릴 만큼 웃음을 터뜨렸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았지만 그럴지도 모른다고 동의했다.

“사실 그 할아버지가 기다려보겠다는 말이 내내 부담이 되긴 했어요.”

“거 봐요. 그렇다니까. 그 할아버지는 벌써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이 ‘남산 산신령이다’에 망설임 없이 한 표 던집니다!”

누가 물어봤냐구? 그런데 나 혼자 괜히 여론조사 분위기를 내고... 확실히 그날 나는 많이 흥분했었다. 내 흥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내 소녀시절의 ‘스타언니 독점 대면?’ 물론이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언니는 책임감이다

그는 23세에 세계를 제패하고 3년 후인 26세에 은퇴했다. 25세만 되어도 노장소리를 듣던 시절이었다. 1952년생 용띠인 그에게 지금 31세의 무매독자 아들이 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

처음 탁구를 떠난 그는 자유로웠다. 좋은 성적을 못 내면 죄인의 심정이 되는 국가대표 스트레스를 벗어난 것이다. 길을 가다 탁구소리만 들어도 현기증이 날 정도였단다. 하긴 그가 사라예보의 신화를 만들어냈던 시절은 박정희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마지막 피치를 올리던 유신정국으로 스포츠 국위선양은 군사정권에게는 안정제로, 군사문화에 가위 눌린 국민들에게는 청량제로 작용하였으니.

그러나 팔자도망은 못한다고 산신령까지 나타나 독려했던 ‘현숙’ 이가 어찌 ‘방콕(방에 콕 박혀 산다)’ 에 머물 수 있으

랴. 방송인으로 시작하여 탁구 교실로 생활체육에 일조했으며 아시안 게임의 단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이다.

“여자선수들은 아무래도 결혼하면 살림과 육아에 매여서 지도자 활동이 어려워요. 그래도 당당하게 가족과 주위에 협조를 요구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장시키지는 말아야지요. 스타후배들을 자주 불러내려고 합니다.”

“남성 팬들을 구장으로 끌기 위해 여성농구선수들에게 스판 운동복을 입게 했어요. 몸에 붙어서 뛰기 편한 점도 있지만 몸매가 드러난다는 부담감으로 선수들이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못 써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대한체육회에 여성임원 20%를 요구해서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행사 때 남자들이 그러더군요.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여성체육대회가 올해 9월 19~20일 강릉에서 열리는데, 늘 재정이 확보되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여자선수들은 아무래도 결혼하면
살림과 육아에 매여서 지도자 활동이
어려워요. 그래도 당당하게 가족과 주위에
협조를 요구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장시키지는 말아야지요.”

코치선생님과 약수터 할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현숙소녀의 책임감은 이제는 여성스포츠인의 ‘언니’ 역할을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자라 있었다. 그뿐 아니다. 여성으로서 주체의식, 자매애, 도전정신, 모르면 무조건 찾아가 배워 쌓은 15년 체육행정 실무능력, 탁구를 넘어 체육계로, 선수를 넘어서 온 여성을 끌어안는 말언니, 이야기를 나눌수록 기대하지 않았던 동지애가 발동되면서 내 흥분은 가속되었다.

나는 그가 만든 한국여성탁구연맹(선수 일반인 혼합)에 당장 가입을 맹세(?)했다. 그리고 ‘언니’ (가입즉시 선후배 사이 발효)와 우리 여성재단이 손잡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짐 튀기며 나열했다. 여학생들의 체력향상을 통한 자신감 확립, 체육특기여성 육성지원, 스타플레이어들의 사회적 기여(일단 여성재단 홍보대사부터)를 통한 보람 창출, 양성평등을 통한 체육계의 성장, 있는 줄도 모르게 10년이나 된 전국여성 체육대회 활성화 방안, 여성스포츠 재정 마련을 위해 우선 스타들의 자서전부터 출판…….

언니는 이 모든 것에 완전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전혀 흥분하지 않았다. 차분한 한 마디.

“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어떤 공격에도 흥분하지 않는 수비수의 내공 앞에 나는 김이 빠지기보다 언니가 더욱 미터워졌다. 무한정 기대고 싶어졌다. 언니와 함께 일을 하면 아무리 많은 일도 아무리 힘든 일도 반드시 다 성사될 것 같았다. 어서 함께 일을 해서 몸 한번 제대로 풀어볼까? 공연한 의욕까지 솟구쳤다. 열다섯 살 때의 스타언니가 된 살이 되어서는 동지 언니로 존재하는 것이 좋았다. 신났다.

그래, 한번 언니는 영원한 언니인 것이여!

언니! 아자, 아자, 화이팅!

1973년의 그가 사라예보의 신화였다면 2009년 오늘의 정현숙은 여자들의 기를 살려내는 실전의 ‘살아예보’이다. W

오한숙희 | 친근한 이웃집 아줌마 오한숙희 씨는 여성들의 일상을 ‘수다’로 풀어내 마음의 차유를 돕는 수다전도사이다. 방송과 집필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국여성재단의 기획홍보위원으로서 발 닿는 곳,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기부와 나눔의 행복을 전하고 있다.



호흡으로 몸과 마음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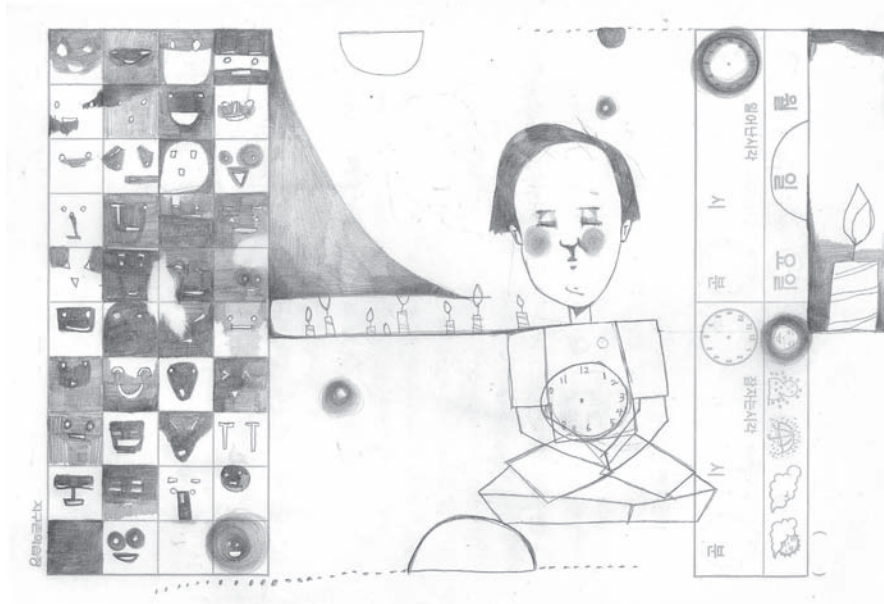
‘호흡 관찰하기’는 명상법 중 하나이며, 횡격막 호흡과 같은 이완 호흡법은 현대인의 스트레스관리 방법이기도 하다. 호흡을 잘 관찰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정신적 안정과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호흡, 이 호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글/왕인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상근활동을 했다. 요가치료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현재 여성건강과 치유센터(준)에 참여하고 있다.

호흡은 내 마음의 지표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호흡의 변화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과제를 발표할 때, 긴장을 하게 되면 평상시보다 호흡이 빨라짐을 느낀다. 또한 일이 의도대로 풀리지 않고 화가 꼭지까지 치밀어 오르면 씹씹거리기도 한다. 깜짝 놀라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순간적으로 호흡을 참기도 하고 우울할 땐 들숨이 약해지면서 호흡이 가늘어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 편안할 때는 호흡이 원활해지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반면 감정을 억누를 때는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제한하는 것도 느낄 수 있다.

이렇듯 호흡은 우리 마음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래서 호흡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크레딧 | 정이영 그림

호흡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근육의 긴장이나 이완상태, 자세와 움직임도 호흡에 영향을 미친다. 가슴과 배의 근육들이 만성적으로 긴장되어 있거나 장시간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거나 상체를 뒤로 젖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와 같은 자세에서는 들숨과 날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호흡의 리듬은 불규칙적이게 되고, 호흡을 통해 활력과 충만감을 느끼기는 어렵다.

반면에 가슴과 배의 근육들이 이완되어 있고 바른 자세를 취하고 규칙적인 움직임을 취한다면, 이완된 횡격막 호흡이 잘 이루어져서 정서적

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호흡은 내 몸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몸을 매개로 심리치료를 하는 분야에서는 호흡기법을 통해서 억압된 정서가 드러나고 정화하도록 돕는다. 심신수련법에서는 횡격막 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완기법에서는 집중의 수단으로 호흡을 사용한다. 명상에서는 호흡 관찰하기를 통해서 자신의 몸과 정서, 정신 상태에 대한 정확과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호흡으로 이완하기

우리는 심장박동이나 체온, 위장의 움직임 등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호흡은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기에 바람직한 호흡 패턴을 훈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는 어떤 호흡이 바람직할까? 바로 이완된 횡격막 호흡이다. 숨을 들이쉴 때 횡격막이 살짝 밑으로 내려가면서 배가 앞으로 살짝 나오고, 숨을 내쉴 때 횡격막이 살짝 위로 올라가면서 배가 안으로 살짝 들어가는 움직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호흡. 나는 과연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는지 지금 한번 점검해보자.

혹시 숨을 들이쉴 때 배를 밀어 넣지는 않는지, 혹은 배의 움직임은 거의 없이 가슴 윗부분을 주로 움직이지는 않는지. 딱 벌어진 어깨나 솟아오른 가슴, 가는 허리 모양을 만들기 위해 가슴을 내밀고 배를 당기는 자세를 취하면서 호흡을 하게 되면 횡격막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제한할 뿐 아니라 횡격막이 만성적으로 경직된다. 생리적으로는 호흡을 제한하게 되고, 심리적으로는 배 아랫부분에 저장되어 있는 감정들을 고립시키게 된다. 고립된 감정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면 폭발하는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다.

호흡 자각을 통한 치유와 성장

어느 날 나는 호흡수련을 하면서 날숨에 비해서 들숨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을 알았다. 날숨을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것도, 날숨을 충분히 할 수 없으니 내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이를 계기로 나는 일상에서 날숨이 충분히 안될 때는 혹시 내가 포기하는 것, 나누는 것, 내려놓는 것에 인색한 것은 아닐까에 대해 점검하곤 한다.

나와 함께 호흡 수련을 했던 여성들은 호흡 수련을 하면서 우울과 짜증, 부부 싸움했을 때의 슬픔 등 여러 감정들이 올라오곤 하는데, 이런 감정들이 가슴의 통증이나 신체 반응과 함께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한다.

우리들은 모두 다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다. 이런 내면의 자원들이 발현될 수 있도록 자각력을 증진시킨다면 일상에서 자신의 몸, 정서, 생각들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호흡을 잘 자각하면 호흡의 기저에 있는 느낌과 감정들과 만나게 되고, 이러한 느낌이나 감정들과 상호작용하는 기억이나 고정관념들과 만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몸과 마음의 정화와 치유, 자신의 정서와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로 안내한다. 이제 하루에 20분만이라도 바로 호흡에 투자하길 바란다. W

생활 속에서 스스로 해보기

- 바른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을 관찰합니다. 이 때 호흡을 의도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호흡을 할 때마다 신체 어느 부위를 주로 움직이는지 살펴봅니다.
- 일상생활에서는 들숨과 날숨의 길이가 동일하거나 들숨보다 날숨이 조금 긴 호흡이 바람직합니다. 호흡에 집중해서 들숨이 편한지 날숨이 편한지, 들숨과 날숨의 길이가 어떠한지 살펴봅니다.
- 들숨과 날숨을 부드럽게 합니다. 과도하게 소리가 난다면 주의 깊게 잘 살펴봅니다.
- 느리고 깊고 안정된 호흡을 위해서는 호흡에 사용되는 근육의 이완이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스트레칭 등을 통해 근육 긴장을 이완하고 유연성을 증진시킵니다.
- 호흡에 집중하면 신체반응이나 통증, 느낌, 정서, 기억,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비판하지 말고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 자세나 움직임, 기분이나 정서, 행동이나 태도에 변화가 있을 때 호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록하고 되돌아봅니다.

건국대 환경과학과 학생들의

‘커피 한 모금’



글/조성인(건국대 환경과학과)

전공과목 중의 하나인 ‘환경과 NGO’ 시간, ‘NGO단체 기부금 마련하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부금 마련은 우리가 직접 후원금 사업을 열고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지원 할 NGO를 찾다가 우연히 한국여성재단을 알게 되었고, 한국 여성재단에서도 흔쾌히 우리의 모금사업에 동참해주시기로 하여 기부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5월 집중모금캠페인’이라는 나눔캠페인이 5월마다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돌봄의 주체인 여성들, 헌신과 희생으로 가족과 사회를 보살펴온 우리의 어머니와 딸들을 위하여 5월을 여성을 위한 기부의 달로 특화해 다양한 나눔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5월 1일, 100인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31일까지 매일매일 100명의 기부자를 낳는, 그래서 총 3,100명의 기부자가 동참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라는 모금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는 100인 기부릴레이에 함께하면 어떨까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인 기부릴레이에 그냥 참여하기보다는 모금 사업을 펼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금캠페인 활동을 알리는 것이 더욱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커피 한 모금’이라는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 전부를 후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준비를 위해 여성재단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이날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재단의 활동 소개와 ‘동전모금함’ 과 ‘커피 한 모금’ 사업에 필요한 준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5월 13일, ‘효성’ 기업에 동전모금함을 설치하고, 18일에는 건국대학교 생명환경대학 앞에서 ‘커피 한 모금’ 모금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전에 모금 사업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고 커피와 아이스티도 미리 제조하였습니다. 커피와 아이스티를 한잔에 1,000원에 판매하면서 100인 기부릴레이에 관한 설명도 같이 하였습니다.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우리의 모금 활동을 취재하러 오셨고, 커피 판매와 기부릴레이 홍보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더운 날씨 탓인지 처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었고,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단 돈 1,000원이지만 커피와 아이스티를 사 먹으면서 좋은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모두들 기분 좋게 참여할 수 있었고 우리도 더욱 즐겁게 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외에도 100인 기부릴레이에 동참하기 위해 각 조원은 5명 이상씩 릴레이 바통을 이어 나갔고, 최종 114명의 기부자들이 기부릴레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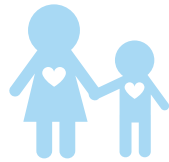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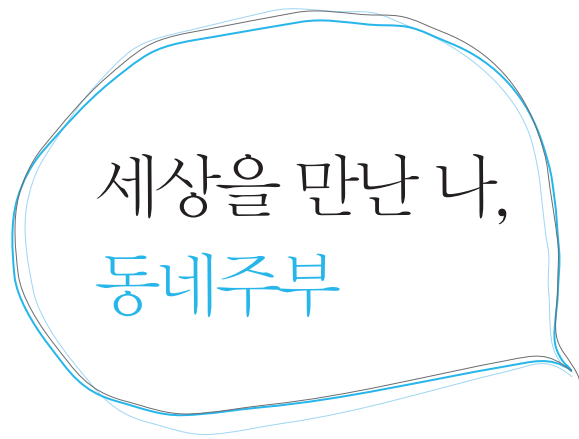
‘효성’ 기업에 설치했던 동전모금함을 수거하고, 커피판매로 모은 수익금, 그리고 기부릴레이를 펼친 이들의 기부금을 모두 합하여 여성재단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부한 후원금이 비록 큰돈은 아니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단체들과 활동들도 알게 되었고 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조원들 모두 처음에는 과제로 참여하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제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여성재단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모금사업을 하면서 보내게 되어 더욱 따뜻할 수 있었고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부족하고 서툴렀지만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한국여성재단과 기부릴레이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교수님과 학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W





글/이미경

꿈나무어린이도서관 관장, 꿈나무도서관에서 2002년부터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으며 마을에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살고 싶어한다. 이웃 때문에 사람 사는 행복을 느끼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가 페를 준비하고 있다

2000년, 나를 아이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나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쳤다. 첫아이의 일기와 독서지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몰랐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했다. 무작정 책을 사줄 수 없는 상황에서 떠오른 것이 도서관이었다.

사직도서관을 찾아가보기도 하고, 개인도서관을 만들어보고자 했으나 집 가까이에는 도서관이 아쉬울 뿐이었다. 그때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다. 학교어머니회에서 같이 활동하던 엄마들의 동의를 얻고 지역 시민단체를 찾아가고 어린이와 엄마들이 서명한 제안서를 들고 동장을 찾아갔다.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선뜻 동의해준 동장님, 만장일치로 도서관설치를 승인해 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지역에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고 뜻을 모아준 학교 엄마들과 아이들... 이렇게 뜻을 모아 움직이다 보니 지금의 어린이도서관이 있게 된 것 같다. 혼자만의 생각과 실천으로 이런 도서관을 만들려고 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첫아이 독서교육 때문에 시작한 도서관 자원봉사를 오늘도 하고 있다. 2002년 1월 도서관을 개관한 후, 지역 여성들의 자원봉사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로 8년을 운영해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처음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지 못해 도서관의 개관시간을 오후 1시로 늦춘 적도 있고, 상근자를 구하기 위해 구청 문턱을 닳도록 찾아다닌 적도 있었다.

어린 시절 책과 도서관에 대한 기억이 오늘날 내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줬던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도 언젠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린이도서관에서의 행복했던 기억으로 이곳을 다

시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 공간에서 우리처럼 자원봉사를 하고 지역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기 바란다.

도서관과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다

이렇게 꿈나무어린이도서관은 주민들의 제안과 주민들의 주도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도서관이다. 처음 날 자라했던 큰아이는 이제 도서관에 오지 않지만 동네 아이들이 빈자리를 채우며 맘껏 책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꿈지기봉사단'의 자원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을 주도하며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꿈나무를 운영하는 자원 활동가 25명은 나를 비롯해 모두 주부이다. '주부'는 '어머니', '아내'와는 또 다른 의미로 가정에서는 중심을 이루지만 사회적으로는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다. 이러한 주부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나옴으로써 소외된 집단이 아닌 사회의 주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하는 소풍을 준비하던 중 한정된 예산으로는 이주여성들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자, 우리끼리 작은 돈과 힘을 보태 직접 도시락을 준비한 적이 있다. 지역주민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어느새 우리 스스로가 생활속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실천하는 주부들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다. 주부들에 의해 공동체가 운영되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하나 천천히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함을 느낀다. 나 역시 많이 변했다. 우리 아이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우리 동네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사회의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건강하게 꾸려나갈 우리 엄마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나를 보면서 자원봉사활동이, 지역이 날 변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대안적 삶을 실천하는 공간

이제 함께 자원봉사를 하는 지역 엄마들과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체 창업을 준비중인 것이다. 어린이도서관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두고 우리는 새로운 대안문화공간을 창출하고자 한다.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불안에서 도서관을 시작하였다면 이번에는 먹거리에 대한 불안에서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갈 것이다. 지역 내에서 이 사업을 성공시켜 좋은 일을 함께 하면서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대안적 삶을 살아 보이고 싶

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지역의 아이들이 할 일이 많아질 거라 생각한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9년 꿈나무도서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다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들에 대한 측은지심에서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지만 다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이주여성들과 노래를 부르고, 요리를 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만남을 통해 마을안에서 자연스런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록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하였지만 다문화는 지원 사업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국제교류사업인 것이다.

또한 서부교육청과 함께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자원활동가교육으로 '도서관학교', '책과 함께 노는 책 놀이터 사업',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 독서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도서관신문 발간을 위해 어린이기자단, 청소년기자단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기자단을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모집하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도서관활동을 해온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다. 이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행복했던 기억이 살아가는데 힘이 된다면 나의 역할은 다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동안 끊임없이 나 자신과 주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들을 한 것 같다. 그 일들은 무한정해 보인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을 때쯤이면 우리는 노인복지를 위해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돌이켜보면 엄마들, 주부들이 주체가 되어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일들을 발굴해나가고 있는 것 같다.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면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인식하고 우리의 힘으로 바꾸어 나가려할 것이다. 아이들의 삶, 우리의 삶의 주기에 맞춰 새로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삶이 녹아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지역 활동이며 그것이 동네가 주는 축복이다. W

입에 들어온

설탕같은 키스로



글/김선우 시인

왜

그렇게 20대를 건너오기 힘들었을까요.

살아도 살아도 20대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요.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던 골목길 위에서 머뭇거리며 배회하던 20대가 지나고, 나는 30대에 접어들면서 펍이나 평화로워졌습니다.

드디어 서른이 되었어! 짐 모리슨도 지미 헨드릭스도 제니스 조플린도 서른 전에 죽었는데. 나는 서른이 되었지 뭐야. 치, 이젠 요절할 수도 없으니 잘 살아야지. 서른이 된 걸 축하해줘. 나는 챙 넓은 밀짚모자를 쓰고 바지 뒷주머니에 두 손을 꽂은 채 휘파람을 불며 들판을 산책하듯이 서른을 축하받았어요. 서른이 되었어! 마흔이 될 때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잘 살아냈지 뭐야. 축하해. 축하해줘.

요즘도 나는 이십대 초중반의 젊은 벗들을 만날 때면, 아휴, 그 젊음이 안타까워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있어요. 종아리 예쁜 소녀들이 교복치마 바짝 올려 입고 재재거리며 거리를 지나가는 걸 보면 그 싱그러움에 코끝이 찡해올 때도 있어요. 상처입지 말고 잘들 건너야 할텐데... 생각하지요. 그러나 상처 없는 삶이란 없는 것이니, 병아리 날갯속 같은 저 환한 청춘들도 크고 작은 상처들을 훈장처럼 지니게 될 텐데요. 나는 벌써부터 그 상처들이 안쓰러워 마치 세상에 그이들을 내놓은 삼신할미처럼 꼬부랑하게 염려를 하지만 말예요.

상처에 함몰되지만 않는다면, 상처는 살아있음의 생기발랄한 반증이기도 한 거잖아요. 어차피 삶은 한바탕 난장,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긴 숨이니 상처받을까 두려워 웅크리는 인생처럼 답답한 것도 없을 거예요.

청춘을 일러 질풍노도의 시기라 하지요. 그때엔 왜 그렇게 바람도 질주하고 파도도 키를 넘는 걸까요. 거칠게 뛰며 내닫는 빨주노초파남보의 꽃들, 잎사귀들, 뿌리들.....

하지만 정작 청춘이 힘든 것은 숨 막히는 질주 때문이 아닌지도 몰라요. 정말은 외로움이 두려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홀로 있어도 빛나는 시절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청춘의 시기에 우리의 생의 어떤 시기보다 훨씬 더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아요. 청춘이 질풍노도의 시기라면 그것은 외로움을 주체하지 못해서일 확률이 높아 보이구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과 몰려다니고, 별것 아닌 일들까지 시시콜콜 고민을 얘기하고, 화장실에도 손잡고 다니죠.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알 수 없어 막막한 인생을 다른 누군가도 함께 건너가고 있다는 위안을 얻고 싶은 걸 거예요. 세계는 불가지이거나 미지이고 내 방 문 밖에 무엇이 있는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때이니까요. 세계가 딱히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자각이 들기 시작하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죽어갈 것을 알면서도 누구나 살아가고 있다는 당혹감에 휩싸여 길 잃은 새처럼 울게도 되죠.



“길가에 서 있는 자두나무 가지로 만든 매운 칼 같은 냄새” 가득한 청춘. “입에 들어온 설탕 같은 키스”의 힘으로 또 다른 아름다운 순간을 품기 위해 푸른 새벽의 담장으로 도둑고양이처럼 날렵하게 달려가야 하는 청춘. 달콤한 뒷맛을 남긴 채 곧 사라져버릴 것을

예감하면서도 어디론가 달려가지 않으면 스러지는 청춘의 막막함. 이 막막함이 외롭고, 인생이 순간인 것이 두려워 청춘의 우리는 그토록 열기 가득했던 모양이에요. 그토록 자주 뒷모습을 보이며 울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청춘의 시기를 건너며 우리는 외로움에 대한 저마다의 맞춤형 백신을 가지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악수하는 걸 좋아해요. 누군가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눌 때에도 안녕?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길 좋아하죠.(물론 전혀 악수를 청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과 손을 잡고 인사를 할 때 상대방을 더 오래 기억하게 되기도 하구요.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는 존재로 진화해온 것이 꼭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크고 작은 생의 상처들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손의 느낌. 어떤 손은 몹시 거칠어 마음 뭉클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손은 너무 가냘프거나 차가워서 마음이 슬퍼지기도 하지만,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모두 외로운 존재들인 걸 느끼게 되곤 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이죠. ‘힘내요!’ 라고.

착하지 않은 내가 착해지는 순간들이 불현듯 온다는 것. 그것도 생의 신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포옹도 좋아하지요. 누군가를 포옹한 채, ‘힘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나를 포옹한 채, ‘힘내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의 가슴으로 직접 울리는 목소리를 듣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가슴으로 울리는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지지요. 청춘의 시기 외로움과 사귀면서도 얻은 습관들인 악수와 포옹. 그것이 외로움과 잘 사귀기 위한 일종의 면역반응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른 누군가에게 ‘힘내라...’ 말할 때, 그것이 곧 내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도.

친구가 좋습니다. 하지만 외로움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외로움이 때로 성찬이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가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시시콜콜 내 문제를 친구에게 털어놓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우정이 사라진 것은 아닐 거예요. 다만 우리는 알게 된 거겠지요. 외로움의 틈새가 주는 고적하고 담담한 평화에 대해. 누구나 결국은 홀로 가는 거니까요.

온몸의 감각이 소름끼치도록 예민하게 깨어나는 투명한 푸른 밤. 릴케가 들려줍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부과된 가장 어렵고 궁극적인 것이며 최후의 시련이요, 다른 모든 일이란 실로 그 준비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일이란 높고 고독한 독거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외롭습니다. 청춘을 통과하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외롭다는 게 정상이라는 사실인지도 모르겠어요. 외로움이 주는 음식들, 그 음식들은 때로 영혼의 성찬입니다.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외로움은 삶을 컨트롤하는 데 필요한 약이 되지요.

외로움이 자유와 동반된다면 그 길을 가는 게 현명합니다. 외롭지는 않는데 구속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정이든 연애든 결혼생활이든 자유롭지 못하다면 다시 더 크게 외로워지게 됩니다. 세속도시의 한복판에서 나는 외로움과 자유를 사랑의 조건으로 노래합니다. 어떤 관계에서도 자유로울 것. 그렇다면 그때의 외로움은 존재의 조건을 알아챈 외로움이 됩니다. 자유를 알고 만끽할 준비가 되어 있는 외로움은 사랑과 예술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오는 외로움은 그 외로움으로부터 생존하기에 급급해 ‘나’를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당신에게 고독을 주세요. 고독을 영접하고 잘 대접하는 일의 즐거움이란 게 있으니!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주어야 합니다.

매운 칼 냄새 가득한 청춘을 통과하며 내가 고독과 잘 놀아주게 되었을 때, 아파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의 선물처럼 내게로 왔어요.

아파도 사랑하는 겁니다. 나으려니까 충분히 아프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청춘을 건너며 나는 믿게 되었어요.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아플 수 있게 우리는 진화해 왔답니다. W

〈내 입에 들어온 설탕같은 키스들〉중에서
미루나무 출판사 2007

*이 글은 시집 〈내 허가 입속에 갇혀 있길 거부한다면〉, 산문집 〈물밑에 달이 열릴 때〉의 저자 김선우님이 작품기부를 해주셨습니다.

‘동백이’는 나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까?

글/권인숙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동백이는 요즈음 상영 중인 드라마 ‘그저 바라보다가’에서 황정민이 연기하고 있는 남자주인공이다. 제작진이 무공해 남성이라고 부르는, 드라마나 영화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은 남자 캔디이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때 묻지 않은 심성으로 별 볼일 없는 서민의 삶을 긍정적으로 소박하게 살아가다 한국 최고 여배우의 사랑을 차지하게 된다. 캔디가 남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궁금하다. 동백이는 내조의 여왕의 태봉이 만큼 여심을 흔들 수 있으려나?

신데렐라 판타지의 주인공 ‘캔디’

여자 주인공 캐릭터로 캔디는 여전히 강세이다. 캔디는 만화에서 유래된 캐릭터이지만, ‘별은 내 가슴에’, ‘사랑은 그대 품안에’, ‘파리의 연인’, ‘명랑소녀 성공기’, ‘옥탑방 고양이’ 등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 청순가련형을 대신하는 대표적인 여성캐릭터로 우리 가까이 있어왔다. 최근에도 ‘꽃보다 남자’의 금잔디나 ‘찬란한 유산’의 은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깨끗하고 발랄하며 낙천적이고 소박한 삶의 가치를 잘 알고 지혜롭게 욕구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캔디는 세월을 빚어가며 백마 탄 왕자의 사랑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여성으로 신데렐라 판타지의 주역자리에 계속 초대받고 있다.

‘내 이름은 김삼순’의 작가 김도우는 드라마에서 판타지적 요소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호텔 소유주 아들의 존재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타지 세계에서 백마 탄 왕자의 사랑을 받고 선택되는 신데렐라 욕구는 막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당연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남자 캔디는 드물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돈, 권력, 명예가 낮은데서 판타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부인인 카를라 부르니나 오바마의 부인 미셸은 남편 이



남자 캔디가 되기 위한 조건들

상의 관심을 끌곤 한다. 그러나 독일여자 수상 메르켈의 남편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십 여 년 동안 영국 수상을 했던 대처의 남편은 본 기억조차 없다. 누구일까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도 가져본 적이 없다. 대중의 호기심이 부재한 것은 판타지적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여성의 뒤에 서야 한다는 것은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고 여성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인간관계의 폭이니 특권이 커진다 하더라도 뚝뚝하지 못하고 기죽은 남자의 모습으로 환원되어 판타지로는 다가설 수 없는 것이다. 그나마 서민의 남성은 온달같이 뒤늦게라도 의젓하게 성공해야 드라마 캐릭터가 될 만하다.

남자 캔디의 범주에 들어올 만한 몇 안 되는 드라마나 영화도 조금 따져보면 궤도를 벗어났다. 구동백의 황정민이 ‘너는 내 운명’에서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 농촌총각의 역할을 잘해 냈었지만 과도한 순박함과 우직함은 그렇다 치더라도 상대 여성이 농촌총각보다 가진 게 별로 없는 조건이라 남자 캔디의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로마의 휴일’에서 그레고리 펙이 영국공주와 사랑을 나누었지만 오히려 오드리 헵번은 공주의 위세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집나온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 아가씨 이미지가 너무 강해 남성이 보호하는 상황이었고 공주의 부나 권력이 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너무 미미해 남자 캔디스럽지 못했다.

‘노팅 힐’도 예가 될 만하다. 소박한 여행책 전문 서점주인이 당대 최고의 여배우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에서 분명 남성보다는 여성이 사회적 명예나 권력 돈을 쥐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휴 그랜트가 남자 캔디로 느껴지지 않았다. 줄리아 로버츠가 사는 환경이나 문화가 비교되어서 나왔으면 남녀사이의 역전된 차이가 두드러질 수 있었을 텐데 영화의 상황과 배경이 휴 그랜트와 친구들에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그들의 사는 모습이 꽤나 우아하고 안정되어 보여 여성의 부나 유명세가 가져올 변화가 그다지 클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휴 그랜트의 외모나 말투가 너무 매력 있어 서점주인으로서 보다는 배우 자신을 보는 느낌 때문에 그렇기도 했다. 여자를 따라서 쭈뼛거리면서 레드 카펫을 밟을 때 신데렐라적 캔디의 모습을 잠깐 읽을 수 있었다.

최근 ‘프라하의 연인’에서 대통령의 딸과 연애하는 형사도 여자 우위라는 점에 서는 남자 캔디다운 조건에 부합하는 면이 있긴 했다. 하지만 형사는 지고지

순한 면이 있기는 했지만 순종적이거나 대통령의 딸을 중심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자마자 반말부터 하는 등 거칠고 남자다운 면을 많이 보여주었고 귀엽고 애교스런 순진한 모습은 대통령의 딸의 몫이었다.

남자 캔디 ‘구동백’ 이 구현할 판타지



이런 면에서 보면 구동백은 가장 캔디형에 가깝다. 일단 압도적으로 화려함이나 부, 유명함을 여자가 가졌고 그것이 거침없이 드러나며 구동백의 소박함과 초라함도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 신분의 차이도 꽤 크게 드러난다. 요즘 유명배우(특히 할리우드의)는 거의 신분이 왕족에 가깝고 여배우가 진짜로 사랑하는 남자는 신문사 사장이고 남자의 아버지는 서울 시장 후보이다. 사는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 속물적 기준에서 구동백이 여성에게 줄 것이 거의 없는 조건이다. 그리고 동백의 우체국 동료나 여동생은 상대 여배우가 사는 세계를 동경하고 알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어한다. 여배우는 소박한 세계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임이 과장되게 그려진다.

줄 것 없는 전형적인 여자 캔디같이 구동백은 특유의 밝음과 낙천성, 착함과 서민적 가치를 일깨우며 상대 여자배우의 삶에 활기와 의미를 다시 불러올 모양이다. 이미 이 부분은 십분 발휘되었다.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 여배우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선물했다. 여배우의 동생이 누나가 준 학비를 거절하고 그 돈이 동백에게 주어지자 동생이 어린 시절 누나에게 자전거 선물을 받았을 때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우 청소년들에게 자전거를 선물하여 남매애를 살려낸다. 대가를 바라지 않은 진실한 마음과 세상가치에 초월한 태도로 돈과 권력욕에 찌들어있는 남자와 사랑하고 있는 여배우에 새로운 삶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남자 캔디에서는 판타지적 요소가 약하다. 구동백은 여자캔디가 누리지는 결혼보다 더 짜릿한 판타지의 한 장면도 연출해내지 못한다. 신데렐라 스토리에서 단골로 등장했던 백화점 쇼핑 장면이 좋은 예이다. 재벌아들이 캔디를 거의 반 강제로 끌고 가 구두와 백과 옷을 여러 벌 사 입히고 여자는 좋은 듯 싫은 듯 표정을 지으며 화려하게 변신하는 모습은 결혼식 장면만큼이나 쾌락적 판타지의 순간이다. 꽃보다 남자에서는 백화점 문을 닫고 쇼핑을 하는 파격을 연출했다. 대신 동백이는 여주인공의 동생이 끌고 나가서 명품을 사게 하지만 결국 지불은 동백이 해야 했다. 한 달 월급을 초과하는 비용에 놀라고 입고 난 옷을 반품할



계획을 세워야 하니 판타지와는 한참 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옷으로 갈아입는 구동백이 그다지 빛나 보이지 않았다. 화장과 머리스타일의 변신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옷으로 변신한 남성에 감탄하는 문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구동백의 남자캔디에서는 온달형의 판타지도 연출될 가능성이 적다. 남자의 변신과 성공을 꿈꾸는 온달적 삶을 쫓기에는 구동백이 너무 욕심이 없고 여배우 또한 진실한 사랑에 대한 집착 말고 직업의식이나 신분유지에 대한 열정이 약해 보인다.

구동백 같은 남자캔디가 줄 수 있는 판타지는 딱 한가지인 것 같다. 잘나고 성공하고 권력이 있는 남자의 사랑을 받을 때 단하나 채워지지 않는 문제. 동화에는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을 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Happily ever after 라는 끝맺음을 하고 있지만 조금만 머리를 써보면 바로 등장하는 의심, 정말 행복했을까? 정말 그 남자는 신데렐라만 일생 사랑했을까의 의심의 근거.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한 번도 안전하게 느껴보지 못했던 조강지처의 불안인 남편의 바람 말이다. 구동백이라는 남자캔디는 적어도 바람을 피우지 않을 것 같다. 그것은 실재적으로는 대단한 판타지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판타지가 있기는 하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바라는 것이 딱 하나, 나만 바라보고 충실한 캔디였으면 하는 사실이 더 판타지적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나에게 의지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속세의 기준으로 못난 남자에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짜 판타지 아닐까?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가끔은 멋진 남자에게 구애받고 그래서 의존할 기회를 가지고 싶고 명품의 가격에 구애받지 않은 쇼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나에게 이 판타지가 판타지로 존재하려나?

아! 구동백에게 마음이 콩당콩당 뛸 수 있는 여성이 되고 싶다.W

다시 태어나도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 여자로 태어나 세상을 껴안고 싶은 사람, 여자라서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 그는 지난 4월, 과학의 날에 <과학기술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길여 회장은 의료, 교육, 연구를 하나로 묶어내고자 하는 신념으로 가천 길병원, 가천대학, 뇌과학연구소 등을 건립했고 가천문화재단, 가천박물관,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가천미추홀봉사단 등 문화, 교육, 사회봉사단체를 세워 운영해오고 있다. 의사로서, 경영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살아온 70년의 쉼 없는 여정. 간절히 꿈꾸고 뜨겁게 도전해 온 <가천길재단>의 이길여 회장을 만났다.

간절히 꿈꾸고 끝없이 도전하는 여성 리더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

정리/백진영 기획홍보팀

○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오늘이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길여’ 회장님의 성공 비결이 있다면?

오늘의 가천길재단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있다면 재단 내의 임직원들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물론 나 스스로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4시간 이상 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일에 한번 ‘몰입’ 을 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매달리는 성격 때문입니다. 나의 성공비결을 묻는다면, 그것은 ‘열정과 끈기’ 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천길재단의 로고는 ‘바람개비’ 입니다.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돌지 않습니다. 바람이 없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앞을 향해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바람개비는 제 삶의 표상(表象)이었습니다.

○ 회장님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직업선택에서 남녀차별이 많았을 텐데요. 의사라는 직업을 택한 계기가 있었나요? 의사가 되고서도 많은 역경과 시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것은 운명적인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렸을 때 길거리를 지나다 상처를 입은 강아지, 고양이, 새 같은 동물을 보면 집으로 데려와 약을 발라주곤 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강아지에게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아준 다음 포대기에 싸서 등에 업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의사놀이를 한 셈이죠.

또 소학교 시절에 만났던 교의(이영춘) 선생님도 제가 의사가 되도록 ‘자극’ 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우리 학생들의 가슴에 대고 다정하게 진찰을 해주곤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나도 커서 꼭 의사가 되어야지’ 하고 의지를 다지곤 했습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꿈이 확고부동한 신념이 된 것은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1948년 동짓달, 당시 서른다섯이었던 아버지가 급성폐렴으로 손 한 번 써보지도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가 치료를 해주었다면,

1



2



1. 차가운 청진기 때문에 환자가 놀라지 않도록 늘 가슴 속에 청진기를 품고 다녔던 이길여 회장 2. 가천의대 뇌과학연구소

허무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터인데’ 하는 어른들의 한숨소리에 가슴을 찔고, 이런 체험들이 자연스럽게 의사의 길을 걷게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산부인과 의사로 첫발을 내디뎠던 1950년대 후반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여의사가 드물었고, 특히 여자 산부인과 의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대단했습니다. 인텔리인 여의사라고 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자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남자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 동료의사들이 저의 능력을 오히려 먼저 인정해주더군요.

○ 의사라는 직업은 생사를 다루는 환자를 치료하거나 끝없는 공부 등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후회하거나 벽에 부딪쳐 포기하고 싶었던 때는 없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회장님을 지탱해온 소신이 있었다면?

내 성격이 낙천적인데다 평소 의사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

해왔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는 환자들이 안타까워 열심히 진료활동을 했고, 선진 의학을 배우기 위해 늦은 나이에 미국과 일본으로 홀로 유학을 갔을 때도 외롭고 힘든 줄 몰랐습니다.

물론 수많은 좌절과 위기가 있었지요. 인천 구월동에 중앙길병원을 세울 때 공사를 맡았던 건설회사가 갑자기 망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인천에선 ‘이길여가 부도를 냈다’, ‘길병원이 완전히 망했다’ 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나 자신이 더욱 분발하고, 진심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한 결과, 꼬였던 일들이 다시 풀리곤 했습니다.

나는 일이 닥치면 전력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는 캄촌에서 자란 시골 소녀가 맨손으로 병원을 세우고 사업을 일구려면 이렇게 하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면 무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나의 인생철학이자 경험담입니다. 지금도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1. 이길여 산부인과 전경 이길여 회장(右)이 2층에서 밖을 내다보며 웃고 있다 2. 학생들과함께 3. 무의촌 섬지역 순회 진료 (맨앞:이길여 회장)

◦ 경제가 어려울수록 여성은 남성보다 더 어렵고 건강도 돌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회장님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하기도 하고, 1994년에는 여성 전문병원인 ‘여성전문센터’를 개원하였는데요, 의사로서 간간 만나는 여성들의 모습 속에서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력이 취약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특히 이혼 후 홀로 사는 여성, 남편과 사별한 여성들은 생계가 힘들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중년과 고령 여성 가구주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바우처제도를 도입해 무료진료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산부인과 환자를 보아온 의사로서 여성 질환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병원을 세운 직후부터 정기적으로 주부들을 모아 부인병과 자궁암 예방 등 건강 교육을 실시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부들이 대부분 허리를 굽히면서 장기간 가사노동을 하다 보니, 고령이 되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많은 여성들이 암에 걸려도 자신의 병명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그 시절의 딱한 여성들을 생각하면서 중앙길병원을 완공한 후 전

문클리닉으로 ‘여성전문센터’를 가장 먼저 세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길병원은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 회장님의 저서 <간절히 꿈꾸고 뜨겁게 도전하라>를 보면 ‘결혼도 안 하고 홀로 살아야 하는데’ 하며 걱정하시던 어머니를 설득하여 전 재산을 출연해 의료법인을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용기를 내게 되었나요?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해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의 어머니는 시골에서 태어나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앞서 사신 분이었습니다. 모두 어렵게 살던 시절, 거지가 찾아오면 어머니는 늘 고봉밥을 차려주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가진 것을 풀어서 나눠주는 매우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늘날 내가 봉사와 복지사업을 꾸준히 벌이는 것도, 모두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내가 의료재단을 만든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한때 의료재단 만드는 것을 걱정하고 반대하시던 어머니에게 “종합병원을 해야 개인병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 이것이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 준 의사의 길이자 ‘봉사의 길’이라고 설득하자, 어머니도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또 당시 의사와 변호사 등 이른바 ‘사(士)자’ 붙은 직종의 사람들은 일반인의 존경을 받으면서도 ‘개인의 잇속만 챙기는 집단’이란 따가운 시선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싫었고, 그런 사회적 편견을 깨기 위해서라도 의료법인을 반드시 설립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여성재단에 한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일정액을 기부하고 있는 가천모성보호기금(이길여기금)을 비롯해, 새생명찾아주기 사랑의 바자회 등 나누는 일에도 솔선수범하고 계신데요, 이제까지의 사회공헌 활동도 소개해주시고,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나눔’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요?

가천길재단이 내걸고 있는 깃발은 ‘봉사’, ‘박애’, ‘애국’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환자와 학생을 섬기고 가족과 이웃, 국가를 사랑하자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도 사랑의 실천을 강조합니다만, 사실 사랑의 힘은 무섭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상사에서 사랑을 실천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가진 것을 베풀고 함께 나누면 상대방도 나를 신뢰합니다. 내가 병원을 경영하면서 ‘보증금 없는 병원’, ‘돈이 없어도 치료해주는 병원’, ‘무료진

료’를 과감히 실천하고, 철원과 양평 같은 의료 취약지에서 적자를 감수하며 병원을 경영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캠페인인 ‘새생명찾아주기운동’도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요즘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자본주의가 인류에게 공동번영을 가져다주는 제도인지 의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회 상류층의 자발적인 기부행위와 봉사활동은 사회를 튼튼하게 지키는 힘이 됩니다. 미국에서 부자랭킹 1, 2위를 다투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과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재산을 자식들에게 모두 물려주지 않고 대부분 사회에 환원시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회장님의 저서 <간절히 꿈꾸고 뜨겁게 도전하라>의 제목처럼 앞으로 새롭게 도전계획을 살짝 소개해 주시지요?

가천길재단은 지난해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렸을 때 커서 의사가 되겠다던 나의 꿈은 수도권 서부의 최대병원인 길병원으로 영글었습니다. 그리고 인재를 양성해야겠다는 나의 소망은 가천의과학대학교의 설립과 경원대학교 인수로 이어졌습니다. 운이 좋았기도 했지만, 우리 재단의 이웃 사랑과 공익정신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욕심이 많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의 꿈은 아직도 미완성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현재 총장으로 있는 경원대학교는 앞으로 훌륭한 교수들을 계속 초빙하고 투자를 계속하여 ‘국내 10대 사학’의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바로 옆에 위치한 가천의과학대학교는 뇌과학연구소, 이길여 암당뇨연구원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적 수준의 의료, 보건, 생명과학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가천의대 길병원을 첨단시설을 갖춘 일류 병원으로 발전시키는 작업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계획대로 돼 나간다면 길병원은 10~20년 후쯤 동북아의 허브 의료기관으로 자리매

김하고, 한국 의료계에서 진료와 연구, 교육이 일체가 된 ‘메디컬 클러스터’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 **가천의대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위기에 놓인 경원대학교를 인수해 성공적으로 키우셨는데요, 교육에 ‘투자’ 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회장님의 ‘사람’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가천길재단 산하에는 3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교, 신명여자고등학교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을 의료인으로서 국내 최고수준의 병원을 키우는 데 바쳤다면, 인생 후반부의 목표는 미래 한국의 일꾼이 될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병원과 학교를 경영하면서, 내린 결론은 결국 ‘사람이, 인재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신념하에 1997년 12월 가천의대를 설립하면서, 나는 우수 인재를 모으기 위해 입학생 전원에게 6년간 장학금을 주고 기숙사도 무료 제공하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가천의대는 짧은 시간 내에 국내 최고 의과대학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고,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우리 길병원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교육에 투자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 가천길재단이 장차 한국을 젊어질 신성장동력의 창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뇌연구, 바이오-나노 분야입니다. 1,400억원을 지원하여 가천의과대 부설의 뇌과학연구소, 이

길여 암당뇨연구원, 경원대 부설의 가천바이오나노연구원등 3개 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머지않아 좋은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여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전문가(專門家)가 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21세기는 세계화시대, 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정보화시대를 앞서가려면 나 자신만의 독특한 전문영역을 구축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각을 가진 전문가가 되려면 세상을 많이 관찰하고, 많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생각 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젊었을 때 여행을 많이 하고, 독서를 많이 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또 ‘젊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릴 때 형성된 사람의 품성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진국이 되려면 남을 돕는 데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자원 봉사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차세대 리더가 되고자 하는 여성 일수록 사회를 더 이해하게 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도전정신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날 다소나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상대로 항상 도전적인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산부인과 병원장으로 편히 살 수 길을 택하지 않고 서른이 넘어 미국 유학을 갔고, 일본의 선진 의술을 배우기 위해 마흔 네 살에 유학을 갔습니다.

도전정신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하면 무언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람 탕을 하지 말고, 앞으로 달려서 자신의 바람개비를 돌리기 바랍니다.

이길여 회장이 일구어낸 많은 일들. 이 사회의 동력이 되도록 가꾸어낸 성과만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아직도 그의 꿈은 미완성이다. 약자를 위한 따뜻한 병원, 가슴으로 치료하는 의사를 키워내기 위한 그의 꿈은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다. 우리가 잃어버린, 잊고 있던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향해 자신만의 바람개비를 돌려보시길... W



이길여 회장은 해마다 가천의대 졸업생들의 목에 직접 청진기를 걸어준다

N E W S

딸 지킴이 한·국·여·성·재·단

도토리 하나, 콩 한쪽의 나눔

응원과 후원으로 더욱 풍성한 온라인 기부!

다양한 나눔이 많아질수록 세상이 더 따뜻해진다. 응원과 후원이 함께 해 큰 희망을 만들어 내는 온라인 기부가 상반기 내내 이어졌다. 한국여성재단은 SK커뮤니케이션즈 싸이월드의 사회공헌사이트 ‘사이좋은 세상’을 통해 이주여성의 한국생활과 여성암환자들에게 힘을 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기금도 모았다. 온라인 캠페인과 모금은 실시간으로 관련 주제를 공유하고, 응원과 기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기부자-여성재단’의 소통공간이 되고 있다.

따뜻한 네티즌들, 100인 기부 릴레이 아낌이 되다

여성재단의 ‘여성희망캠페인’이 시작되는 5월초, 네이버의 기부사이트 ‘해피빈’에 모금함을 설치하자, 알토란같은 콩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6월 8일까지 31명이 콩을 기부하여 22,500원을 기부하며 작은 콩 한 쪽도 나누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응원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사이좋은 세상 “제3회 나눔서포터즈” 후원금으로 이주여성쉼터 지원

지난 3월 31일,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생활하는 ‘쉼터’지원을 위해 <가정으로 갈 수 없는 이주여성들과 자녀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시작했다. 4월 20일까지 진행된 캠페인을 통해 총 3,659,368원을 후원받았다. 후원금 전액은 지난 5월 말, 서울이주여성쉼터, 인천여성의전화부설쉼터“울랄라”, 전북이주여성쉼터, 청주이주여성쉼터, 구미이주여성축향쉼터, 대구이주여성쉼터로 전달되어 생필품 및 여성용품, 속옷 및 일상복, 아기 기저귀 및 분유 등을 구입하는 데 지원되었다.

아모레퍼시픽과 사이좋은세상 “여성암환자 돕기 캠페인” 참여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5월 13일부터 27일까지 ‘사이좋은세상’에서 펼쳐진 ‘아모레퍼시픽’의 여성암환자돕기 캠페인 “Make Up Your Life”에 후원 대상 단체로 선정되었다. 참여자들이 단 댓글 하나마다 ‘아모레퍼시픽’과 ‘사이좋은세상’이 후원금 200원씩을 전달하는 이 캠페인은 총 50,000명의 댓글후원을 받았으며 그 결과, 한국여성재단은 총 3,000,000원을 기부받게 되었다. “아름답고 찬란하게 다시 피어날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Make up Your Life!”



지역과 글로벌의 만남

2008 여성활동가글로벌리더십육성지원사업 결과보고회

세계가 함께 고민하는 '여성 이슈'를 여성의 눈으로 보고,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여성활동가글로벌리더십육성지원사업'이 5월7일 2008년 사업보고회를 가졌다.

홍대인근 상상마당에서 진행된 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2008년도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여성재단과 여성NGO의 국제적 연대, 여성이슈의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방안등을 심도있게 토론했다.

이 사업의 슈퍼바이저인 심영희 교수(본 재단 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2부 글로벌 여성 리더십 Talk&Talk에서는 '내가 어떤 성장을 했는가, 정말 글로벌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를 토론했다.

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활동가는 "네팔의 여성리더를 통해 Local과 Global의 만남을 보았으며, 마음속에 여성에 대한 큰 이미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고 목소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활동가는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넓게 보는 특별한 기회가 나에게 와서 준비하고 정리하는 오랜 기간의 경험들이 내 삶에 축적되었고 앞으로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발표했다.

김현아(한국여성민우회)활동가는 "익명의 주부로 살았던 나는 생협활동에 참여하면서 비로소 내가 '여성'임을 자각하게 되었고 '세상바꾸기'에 동참하고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단체사업에 뚜렷한 비전을 세우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전국 2,000여명의 결혼이주여성에게 건강 검진과 교육 진행

2009 한국여성재단 결혼이주여성 의료지원사업

"2009 한국여성재단 결혼이주여성 의료지원사업"은 전국 17개 지역의 약 2,000여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과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예방접종과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사업에 참여한 야마다유끼(일본출신 결혼이주여성)씨는 "한국에 와서 산 지 9년 되었지만 한국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많은 이주여성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여성재단은 결혼이주여성에게 필요한 건강정보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출산 및 육아법, 스트레스 진단 및 대처법, 이주여성관련단체 등을 안내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건강길라잡이>를 발간했다. <건강길라잡이>는 이주여성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그림으로 총 7개 언어(한국어, 타갈로그어,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몽골어)로 30,000부를 발간해 전국으로 배포하였다.

이 사업은 13개 생명보험사가 함께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지원하고 있다.

※의료검진 및 <건강길라잡이>관련 문의 : 여성재단 기획사업팀(02-336-6364)



이화·유한김벌리 이화NPO리더십심화과정 3기 수료식 개최

분쟁지역 전문 PD 강경란 씨 초청 강연도 열려

유한김벌리가 지원하는 미래여성리더십 장학사업의 하나인 <이화 NPO리더십과정> 3기 수료식이 5월19일 이화리더십개발원에서 진행되었다. 수료식 1부에서는 분쟁지역 전문 PD 강경란 씨가 「미래의 시민운동,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의 주제로 특강을 했다. 강경란 PD는 6월 중 KBS <인사이트 아시아>에서 방영할 예정인 <인간의 땅> 요약 영상을 공개하며 분쟁지역을 촬영하며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과 희망을 전달하는 NGO활동가들의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 NGO들이 해외활동을 할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색을 고려한 활동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수료식 2부에서 김해숙 유한김벌리 이사는 "바쁜 활동 속에서 어렵게 시간을 내어 교육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보며 이 사회의 희망을 본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네트워킹과 좋은 활동을 기대한다"고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총 10주의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 대표로 감사 인사를 한 대한YWCA 김지숙 간사는 "본 과정을 통해 내가 얻은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3년차 여성활동가로 일하며 노하우나 경력이 없어 많은 불안감과 위기감에 시달렸으나, 본 과정을 통해 우리의 활동이 역사가 되는 그날을 그려보며 나와 조직의 비전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유한김벌리와 한국여성재단, 이화리더십개발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화·유한김벌리 NPO리더십심화과정은 총 30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

多문화 多함께 중간평가회

지난 6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서울여성플라자에서는 작년 2008년부터 진행된 <다문화다함께> 지원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이 모여 그 동안의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는 중간평가회 자리를 가졌다.

김현미 교수(연세대 문화인류학과)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사회>라는 기초강의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을 단순한 사회통합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한국 사회의 새로운 시민으로 인정하고 지원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사회가 이들과의 평등한 교류를 통해 더욱 확장적인 문화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문화적 감수성을 배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의에 이은 분임토의는 총 4개의 분야로 이루어졌다. <1분임> 직업훈련 및 창업분야, <2분임> 가족통합 및 사회정착분야, <3분임> 아동·청소년 다문화교육 분야, <4분임> 의료지원사업 분야로 나누어 분임토의를 가졌다.

분임토의중,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의 이보은 씨는 "중간현장방문과 중간평가회 강의 등을 들으면서 철학적인 고민을 같이 하게 되었다. 진행과정에서 지역별 네트워크까지 고민하는 여성재단의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총 52개 단체가 참여한 <다문화 다함께> 지원사업은 올 9월 까지 계속됩니다.





국제아동도서협의회 한국위원회, 아이다마을에 도서나눔

국제아동도서협의회 한국위원회가 한국여성재단에 아동도서 총 87권을 기증했다. 이 도서는 지난 6월13일, 여성재단이 인천여성의 전화와 함께 운영하는 ‘아이다 마을’에 전달됐다.

나눔은 가슴 속 깊이 남겨진 감동을 공유하는 것 문화나눔 서포터즈 4기 활동을 마치며

어느 덧 문화나눔 서포터즈 4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늘 그렇듯, 마지막이 되니 그 동안의 시간들을 떠올려보게 됩니다. 설렘이 가득했던 첫 만남과 기대와 약간의 걱정이 함께했던 첫 서포팅활동, 언제나 열정적이었던 정기회의, 그리고 여성재단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의 자원 활동까지... 그 중에서 문화나눔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어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곤 했던 정기회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문화향유가 어려운 여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티켓’을 나누고, 삶의 여유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의견을 공유했던 4기들의 작은 노력이 문화나눔의 미래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평소에 문화생활을 접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여성재단이 지원하는 문화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을 접하고, 배우들과 사진을 찍는 분들의 모습을 보며 ‘문화나눔 서포터즈’에 지원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를 통해 행복을 찾는 분들과 이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해주신 친절하신 기획사를 만나면서 저희 역시 마음의 행복을 담아가곤 했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서포팅 활동은 중증 여성장애인 강희의 꿈과 사랑을 담은 연극 ‘향기’ 문화나눔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객석 모두가 장애인을 연기하는 여배우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객석으로 들어오는 장애인의 옆자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 어쩌면 요즘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사람들은 가장 평범한 것을 잊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는 친구보다 비를 같이 맞는 친구가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를 같이 맞아주는 커녕 우산을 씌워주는 것마저도 쉽지 않고 오히려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뛰어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은 게 슬프지만 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화나눔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했음을 느낍니다. 나눔은 가슴 속 깊이 남겨진 감동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으니 말입니다.

땀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는 뜻의 무한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땀이 없이 이룬 일은 분명히 가치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문화나눔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흘린 땀방울이 마냥 즐거웠으니 웃으며 이 자리를 넘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겁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겁이 나도 하는 것이 용기이듯, 나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포터즈 4기로서의 활동은 끝나지만,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문화나눔 서포터즈 4기
(김미정, 김예슬, 김은지, 김지연, 유희준, 이보람, 이성은, 황세영)



희망을 키우는 씨앗, 공정무역
가난한 자 중의 가난한 자인 아시아의 여성 민중. 그들이 공정무역을 만나면서 새롭게 태어났다.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 전통 기술을 지닌 장인으로, 마을 공동체를 일구는 아티스트로, 아시아와 세계의 생명경제를 살리는 희망의 씨앗으로. 아직은 세계 무역 지도에서 작은 점에 불과한 공정무역이 대안 경제의 이유를 띠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느끼는 행복 때문인 것이다.

이 책을 위해 공정무역 회사 대표님들과 직원분들, 생산자, 관련 단체 활동가, 통역 선생님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분들처럼 저도 여성재단과 조그만 나눔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저자 / 김정희 한국여성연구원 객원 연구위원

